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에 관한 연구^{1a}

- 강원도 소재 국립공원 내 사찰을 중심으로 -

김정민^{2*}

A Study on the Push and Pull Factors of Temple Stay in Korean National Parks^{1a}

- Focused on Temples in National Parks in Gangwon-Do -

Jeongmin Kim^{2*}

요 약

본 연구는 관광동기로서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강원도에 소재한 오대산국립공원 내 월정사와 치악산국립공원 내 구룡사의 2개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152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유(추진요인)와 참여결정시 영향을 주는 요인(유인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객 특성과 유사성을 보였다. 요인분석결과 추진요인으로는 '자아실현', '건강추구', '자연동화감', '관계고양', '종교적 체험', '여가체험'의 6개 요인이, 유인요인으로는 '휴식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질', '사찰의 특성', '이용 편리성', '관광체험거리', '접근성과 교통' 등 6개의 요인이 각각 도출되었다.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7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에 적합한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89.2%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관광과 문화관광, 종교관광의 성격을 아우르는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다원적 참여동기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경쟁력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연환경 기반의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가 지닌 웰니스지향적 추진요인과 유인요인들은 향후 보다 정교화된 후속연구를 통해 일반화될 것이 요망된다.

주요어: 관광동기, 월정사, 구룡사, 자연관광, 문화관광, 종교관광, 웰니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push and pull factors of temple stay in Korean national parks. 152 participants of temple stay in Woljeongsa and Guryongsa in national parks in Gangwon-do area completed a survey to access their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temple stay(push factors) and to evaluate how well the visiting experience performed on a selected set of attributes(push factors). Demographics of respondents were similar to the visitor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 park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identified 6 push factor domains of 'self actualization', 'health enhancement', 'nature assimilation', 'relationship elevation', 'religious experience', and 'leisure experience'. 6 pull factor domains were 'recuperative quality', 'quality of a temple stay program', 'attributes of a temple', 'user convenience', 'tourism experience' and 'accessibility and transportation'. Satisfaction level of temple stay in a national park was very high of 4.71 in a 5 Likert scale. Gangwon- Do was most preferred

1 접수 2011년 8월 12일, 수정(1차: 2011년 8월 31일), 게재확정 2011년 8월 31일

Received 12 August 2011; Revised(1st: 31 August 2011); Accepted 12 August 2011

2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Wonju(220-702), Korea(rina27@sangji.ac.kr)

a 본 논문은 상지대학교 2008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rina27@sangji.ac.kr)

with the percentage of 89.2 as a suitable area for temple stay in a national park. Findings of multi-dimensional tourism motivations of temple stay in a national park that encompass nature tourism, cultural tourism and religious tourism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a more competitive temple stay program and a marketing strategy. However, more defined successive research work is required to generalize findings of wellness oriented push and pull factors of temple stay based on nature in national parks.

KEY WORDS: TOURISM MOTIVATION, WOLJEONGSA, GURYONGSA, NATURE TOURISM, CULTURAL TOURISM, RELIGIOUS TOURISM, WELLNESS

서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숙박문제 해결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이후 방한외국인은 물론 자연과의 교감과 정신적 수양, 자기 성찰 등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여가체험을 원하는 내국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참여 사찰 수 33개, 참여 외국인 991명에 불과했던 템플스테이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지난 10년 동안 약 7만 명의 외국인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였으며, 2009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의해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관광상품이면서 국제화 잠재력을 가진 콘텐츠로 평가받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행 10년 차인 2011년 현재 템플스테이의 운영사찰은 122개로 확대되었으며, 내·외국인을 포함한 템플스테이 참여자수는 연평균 40% 가까이 성장하여 4월 기준 총 참여 인원은 71만 9715명으로 나타났다(www.hankooki.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www.templestay.com)보고에 의하면 템플스테이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12년에는 내국인 29만 명, 외국인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정책으로 관심을 보이며 그동안 총 821억의 예산을 지원했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템플스테이의 수요와 국고지원 등에 힘입어 그동안 템플스테이는 시설 개선과 확충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템플스테이가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개선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별, 사찰별로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력문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 또한 있어왔다(www.beopbo.com). 템플스테이가 비교적 단시일 내에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종교인만의 순례행위에 머물지 않고 각 사찰이 보유한 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과 관광체험을 제공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찰은 예로부터 풍광이 수려하고 고요한 은벽처에 위치하거나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산재해 있는 고찰이 많다. 실제 불교문화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중요 관광자원으로(Kim et al., 2003) 20개 국립공원 중 16개가 산악형인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대부분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군과 함께 많은 불교 사찰들이 입지하고 있다. 사찰입지 지역은 전체 산악형 국립공원의 93.3%를 차지하며 국립공원의 지정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Yi et al., 2006). 따라서 ‘문화유적 방문’과 ‘종교활동 참여’는 ‘자연감상’, ‘등산’ 등과 함께 국립공원 방문의 주요 목적이며(Ahn and Kim, 1996; Jeong, 1997; Kim, 1993), 국립공원 탐방객이 인식하고 있는 사찰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도 본질적인 종교 가치보다는 자연가치와 문화가치, 휴양가치 등 관광이용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Yoon, 1999; Yi and Yi, 2002). 템플스테이의 이러한 대중적 인기는 기존의 특수목적관광 차원에서의 종교관광을 넘어 사찰의 입지적 특성이 제공하는 문화관광과 생태관광, 자연관광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의 체험관광이 가능한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다양한 여가와 관광활동의 기회가 발견되며, 이를 통해 획득하는 체험의 내용과 유형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고찰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문화재 감상을 통한 심미적 체험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내 산사에서는 자연과의 동화를 체험할 수 있다. 자아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정적 활동들과 가족과 동료 혹은 스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교류감 또한 템플스테이의 중요한 체험요소이다(Chung and Chun, 2009). 이렇듯 다양한 템플스테이 체험은 참가자별로 다양한 참여동기를 유발시키며, 이는 자연관광이나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 여타 관광활동의 참여동기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까닭에 템플스테이의 주된 참여동기의 파악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템플스테이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보다 고양하고 한국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찰환경의 훼손 방지와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 핵심 소프트웨어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개

발과 참가자 만족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템플스테이의 주요 참여 동기와 목적, 목적지 결정의 영향요인 등 수요자 욕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자연환경 기반형 관광목적지인 강원도의 국립공원 내 사찰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의 참여동기인 추진요인과 체험만족의 영향요인인 유인요인을 검증하여 향후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수요자 욕구에 맞게 템플스테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론적 고찰

1. 템플스테이의 개념과 유형

템플스테이는 일반인들이 산사(山寺)와 같은 전통사찰 등에 숙박하면서 사찰 생활과 전통 불교문화, 다도, 선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2002년 월드컵 때 시범 운영이 시작된 후 사찰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기성찰과 휴식, 가장 한국적인 정신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가로 인기를 모으며 참가자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템플스테이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에 들어서는 1960년대부터 ‘대불련 사찰순례수련회’ 등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던 수련회와 수련법회의 형태가 현대적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안에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으로 템플스테이를 지목하면서 2004년 국가문화자원으로 지정, 범불교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전 세계 18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관광박람회(ITB)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 OECD는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 성공적인 5대 관광상품’ 중 하나이자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템플스테이의 인기가 높아지자 2010년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으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하였다. 즉 템플스테이는 역사적으로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자 신도들의 수행공간에 국한되었던 사찰이라는 공간을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 체험 등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나 불교문화 등 문화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강도 높은 수련의 개념이 불가 아닌,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 외국인들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현대적 여가와 관광의 형태로 확장된 것이다 (www.beopbo.com).

2. 관광동기로서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관광객이 특정 관광목적지를 방문하는 심리적 이유인 관광동기는 관광목적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서 관광목적지의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초가 된다. 관광동기는 관광행동을 유발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의 총칭으로 관광객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며, 또한 관광객의 모든 행동을 추진하고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Crompton(1979)과 Iso-Ahola(1982)는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개념을 이용하여 관광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추진요인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특정 형태의 관광에 참여하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인하는 심리적 자극이고(Goodall, 1991), 유인요인은 특정 목적지나 장소의 특성 내지는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 관광을 떠나겠다는 의사결정 후 특정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Sharpley, 1997). 즉 관광객은 관광행동과 관광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내부적 요인인 추진요인과 목적지가 지닌 매력 등의 외부요인인 유인요인에 따라 관광목적지를 선택하게 된다. 유인요인은 관광목적지를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추진요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광객은 관광목적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 동기유발적인 추진요인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인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템플스테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지리학 차원에서의 사찰의 공간구성이나 지리적 분포, 유형의 열거이거나(Chung, 2002), 사찰의 조경과 건축 등 외부환경에 관한 연구(Kim, 2005; Hong, 2005), 사찰의 관광상품화 방안이나 그 효과에 대한 연구(Do, 2000; Yi and Yi, 2002; Yi *et al.* 2006)가 주를 이루었고 템플스테이의 관광행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문화관광의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템플스테이의 참여체험과 만족과의 관계(Kim and Yoon, 2008; Chun and Chung, 2008; Chung and Chun, 2009)를 탐색하는 수준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세분화된 관광동기 차원에서의 접근은 부족한 현실이다. 템플스테이 동기요인과 농촌체험관광과의 연계전략을 모색한 Jin(2010)의 최근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여자의 동기를 자연생태체험, 불교문화체험, 휴식의 3가지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Singh and Leslie (2005), Richards(2007)는 종교관광을 문화관광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Hudman and Hawkins(1989), Din(1993), Prorok(1986), Arnould and Price(1993), Schmidt and Little(2007) 등은 종교관광의 목적을 순례행위, 종교모임 참여, 역사유적지 방문, 신에 대한 감사와 속죄, 사회적/정신적 고양, 종교인과의 교감, 일상탈출, 신기성, 자기성장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방문동기인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을 조사한 Fielding and Pearce(1992), Uysal and Jurosky (1994), Fakeye and Crompton(1991), Turnbull and Uysal (1995) 등의 연구에서는 ‘가족화합과 친목도모’, ‘자연경관 감상과 학습’, ‘건강’,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 ‘모험과 신기성’ 등의 추진요인과 ‘유적과 문화’, ‘숙박과 교통’, ‘음식과 인프라’, ‘주민의 친절성’ 등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1989), Kim(1993), Ahn and Kim(1996), Jeong(1997), Kim *et al.*(2003) 등의 연구에서는 불교사찰이 입지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는 ‘종교유산의 학습’이 추진요인에 추가되었고, 유인요인으로는 ‘관광자원의 다양성’, ‘관광정보 제공’, ‘시설의 편리성’, ‘접근성’ 등의 요인 외에 역사/문화 자원이 추가로 보고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현황

본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인 강원도 소재 12개 사찰 중 규모와 대중적인 인기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오대산 국립공원 내 월정사와 치악산 국립공원 내 구룡사를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월정사는 7세기 경 자장율사가 창건한 명찰로서 부처의 진신사리와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불교의 성지이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오대산은 가장 한국적인 숲의 모습과 향기를 지니고 있는 천혜의 명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울창한 전나무숲길은 월정사의 자랑으로 최근 들어서는 숲의 치유효과와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월정사 템플스테이는 연간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강원도 내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주제로 ‘산사의 하루’, ‘여름수련법회’, ‘참선과의 만남’, ‘숲길걷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등의 정규프로그램과 사찰에 머물며 잠시 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와 사찰문화를 단기간에 체험할 수 있는 ‘월정사템플라이프’ 등의 비정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세 프로그램은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참선, 예불, 108배와 염주꿰기, 율력, 전나무숲길걷기, 오대암자 순례, 성보박물관 관람 등으로 구성된다(<http://woljeongsa.org>).

오대산에서 서남향으로 분기되어 원주시와 횡성군에 걸쳐 있는 치악산 국립공원은 수도권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해 탐방 활동이 연중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http://chiak.knps.or.kr>). 공원 내에 위치한 구룡사는 668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로 도선국사의 비보사찰이기도 한 강원 영서 지역의

대찰이다. 템플스테이는 200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진리에 대한 갈망과 본래 청정한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 계기 체험’을 목적으로 발우공양, 새벽예불, 치악산산행, 불교유적지 답사, 108 염주만들기, 도예, 한지공예, 다도, 생태체험 등 개인과 단체를 위한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www.gurongsa.or.kr).

2. 조사분석방법

현장설문조사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에 걸쳐 약 한 달간 오대산 월정사와 치악산 구룡사에서 운영되는 1박2일 이상의 정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을 방문하여 템플스테이를 관장하는 스님과 관계자의 관리 하에 오대산 월정사 120명, 치악산 구룡사 80명, 총 200명을 조사하여 이 중 152명을 유효표본으로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관련 7문항, 템플스테이에 대한 이미지와 체험만족도 관련 4문항, 이용관련 2문항,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등 크게 5가지 범주의 질문군으로 구성되었다.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측정을 위한 변수들은 앞서 논의된 국립공원과 자연관광 관련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종교관광의 참여 목적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추진요인 총 23개, 유인요인 총 26개 문항을 각각 도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PC+ 19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82명(52.6%), 여성이 70명(47.4%)으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으나 남녀 응답자 비율에 큰 차이는 없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도 60대를 제외하고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템플스테이 이용 연령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다소 많았다. 직업은 사무기술직(28.9%), 전문직(13.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평소 한정된 시공간에서의 업무부담이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 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응답자가 전체의 60.5%, 대학원 이상을 합하면 71%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소득수준은 301만 원 이상~400만 원 이하가 25.8%로 가장 많았고, 401만 원 이상~500만 원 이하가 19.4%,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도 14.5%였으나 소득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로 고학력에 소득별로 고른 이용을

Table 1. Demographics of Survey Respondents(N=152)

Criteria		Frequency(No. of Person)	Percentage(%)
Gender	Male	82	52.6
	Female	70	47.4
Age	30's	34	30.4
	40's	38	33.9
	50's	32	28.6
	over 60's	8	7.1
Marital Status	Married	68	45.9
	Single	80	54.1
Occupation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6	3.9
	Self-Employed	8	5.3
	Company Employee	44	28.9
	Sales Person	4	2.6
	Professionals	20	13.2
	Housewife	10	6.6
	Unemployed	6	3.9
	Others	50	32.9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34	22.4
	College Graduate	92	60.5
	Graduate School	16	10.5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22	17.7
	2.01M ~ 3 M	16	12.9
	3.01 ~ 4 M	32	25.8
	4.01 M ~ 5 M	24	19.4
	5.01 M ~ 6 M	12	9.7
	More than 6 M	18	14.5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객의 일반적 특성과의 유사한 결과이다.

2. 일반이용행태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일반적인 이용행태 파악을 위

해 동반 유형과 정보획득 원천, 적정 이용 기간과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에 적합한 지역, 그리고 전반적인 체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동반유형은 가족/친지와 직장동료/단체가 각각 31.6%, 혼자(23.7%), 친구/연인/선후배(7.9%), 기타(5.3%)로 혼자 이거나 혹은 3인 이상의 동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2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Figure 1). 템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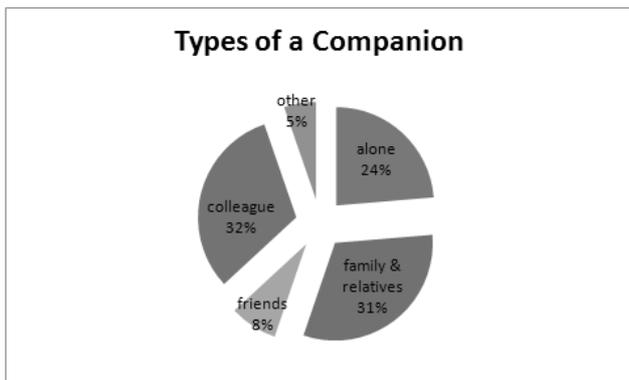


Figure 1. Types of a Compa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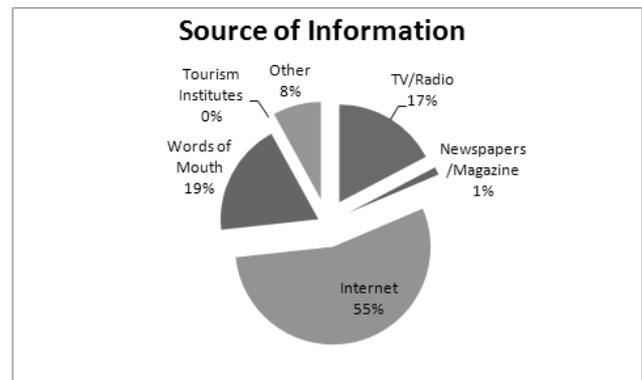


Figure 2. Preferred Length of Temple St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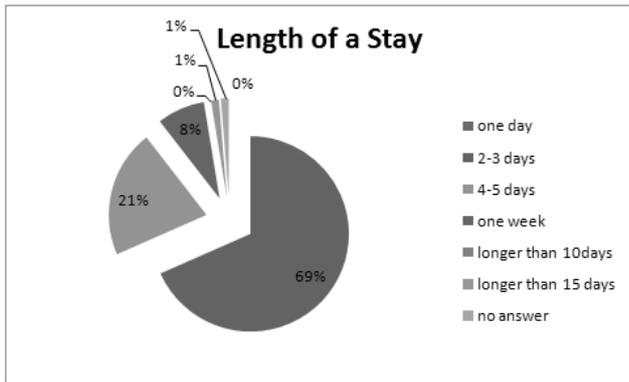


Figure 3. Source of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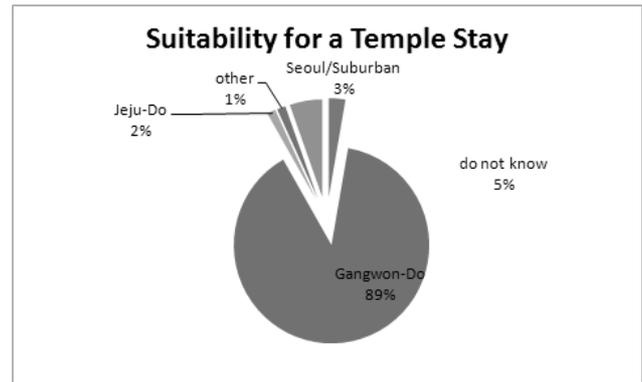


Figure 4. Suitability for a Temple Stay in Nat'l Park

스테이에 관한 정보원천은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친구/친지들의 구전과 TV/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Figure 2). 이는 향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인터넷과 SNS 등 새로운 정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구전 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최대 이용기간은 2~3일이 68.4%로 가장 높았고, 4~5일(21.1%), 일주일 이상이 7.9% 순이었으나 이보다 긴 기간은 선호도가 1.5%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났다(Figure 3).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에 적합한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89.2%의 압도적인 선호를 보였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Table 2.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for Push Factors

Push Factor Domains and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Communalities	Item Means
Religious Experience		7.870		3.41
To Visit and Commemorate an Event	0.868		0.788	3.70
To Understand and Learn Buddhism Culture	0.792		0.752	3.97
To Express Gratitude	0.744		0.792	3.38
To Appreciate Cultural/Historic Resources	0.677		0.717	3.72
To Fulfill a Pilgrimage	0.671		0.747	2.81
To Repent and Make Atonement	0.610		0.776	2.97
To Be in Communion with a Monk and Coreligionists	0.603		0.792	3.32
Health Enhancement		2.920		3.83
To Solve Physical Stress	0.785		0.723	3.68
To Solve Mental/Psychological Stress	0.736		0.800	4.28
To Enhance Health and Fitness	0.706		0.716	3.20
To Escape from Everyday Routine	0.630		0.605	3.91
To Escape from City Environment	0.609		0.650	4.10
Leisure Experience		2.345		3.05
To Enjoy Solitude	0.821		0.775	2.84
To Enjoy Adventure and a Sense Of Achievement	0.706		0.736	2.88
To Enjoy Novelty	0.683		0.631	3.42
Nature Assimilation		1.388		4.21
To Appreciate Beautiful Natural Resources	0.881		0.827	4.20
To Take a Rest in a Natural Setting	0.787		0.721	4.22
To Experience and Commune with Nature	0.781		0.603	4.21
Relationship Elevation		1.281		3.60
To Enhance Family and Human Relationship	0.865		0.858	3.58
To Restore Self-Esteem	0.815		0.840	3.61
Self Actualization		1.094		4.24
To Have Inner Growth	0.811		0.800	4.20
To Have Introspection and Enlightenment	0.768		0.747	4.26

지역은 2.7%에 불과해(Figure 4)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 기반의 템플스테이에 있어 강원도의 경쟁적 우위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71점으로 매우 고무적이나 이 같은 결과는 템플스테이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향후 만족도 유지와 향상을 위한 질관리라는 도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3. 요인분석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도출을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유사 변수들의 집산화 방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모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총 23개의 추진요인과 총 26개의 유인요인에 대한 설문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분석하였다. 추진요인으로 적용된 변수 중 ‘등산 등의 야외활동’ 항목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한 결과 추진요인들의 Cronbach α 값은 0.91로, 유인요인들의 Cronbach α 값은 0.938로 각각 나타나 사회과학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인요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설문항목이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6개의 모든 변수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1)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추진요인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참여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는 추진요인 23개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자아실현’, ‘자연 동화감’, ‘건강추구’, ‘관계증진’, ‘종교적 체험’, ‘여가 체험’의 총 6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KMO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0.794,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분석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개 요인의 설명력은 약 73.46%이다. 추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실현’의 동기에는 ‘내면적 성장과 새로워지기 위해’와 ‘자기 성찰과 깨달음을 위해’가 포함되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트렌드인 정신고양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활동 증가와 종교관광 목적지의 부상 추이(Resinger, 2006)와도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대중적 인기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자연 동화감’으로 명명된 동기는 ‘쾌적한 환경에서의 휴식과 휴양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자연을 체험하고 교감하기 위해’가 포함되어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국립공원 방문의 주 목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강추구’ 동기는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공적이고 복잡한 도시환경에서의 탈출을 위해’,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을 위해’,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 증진과 건강한 몸매의 유지를 위해’ 순으로 나타났는데 과도한 도시화로 인한 녹색갈증과 웰니스 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국민휴양활동의 주 목적지로 각광 받는 최근의 방문행태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동화감’은 일상에서 벗어나 웰니스를 추구하는 ‘건강추구’ 동기와 함께 정신적 고양을 위한 대표적 관광활동으로(Yeoman, 2009)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가장 핵심적인 참여동기라고 판단된다. ‘관계고양’의 동기에는 ‘자신감 회복과 자존감 증진을 위해’와 ‘가족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가 포함되어 Chung and Chun(2009)의 연구에서 템플스테이의 주요 인지적 체험요소로 설정한 자연동화감, 대인교류감, 자기성장감 등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종교적 체험’동기는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감상을 위해’, ‘사찰방문과 행사참여를 위해’, ‘부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스님, 기타 참가자와의 교류와 새로운 사경을 위해’, ‘속죄와 회개를 위해’, ‘종교적 순례행위로서’의 순으로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는 템플스테이가 진지한 종교관광 차원보다는 지역의 고유성을 대표하는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경험·만남 등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문화유산관광(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6)의 형태에 가깝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여가체험’의 동기로는 ‘신기성과 새로움을 느끼기 위해’, ‘모험심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고독을 즐기기 위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항목 평균치가 낮아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는 국립공원을 주목적으로 하여 등산 등의 활동지향적 여가에서 체험하게 되는 자연동화, 자유감, 유능감, 모험감, 자기표현감 등의 자연체험(Sung et al., 1996)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2)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유인요인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시되는 유인요인 총 26개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두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0.792,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유인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요인의 설명력은 약 72.06%이며,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6개의 유인요인들은 ‘휴식성’, ‘프로그램의 질’, ‘사찰의 특성’, ‘이용 편리성’, ‘접근성과 교통’, ‘관광체험거리’로 구분되었으며,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목적지 의사결정 시 휴양과 휴식을 위한 사찰의 자연적 입지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휴식성’에는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한 분위기’, ‘잘 보전된 자연경관’, ‘사찰 경내·외의 고요함과 평화로움’, ‘자연자원(공기, 물, 토양)의 질’, ‘산사 고

Table 3.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for Pull Factors

Pull Factor Domains and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Communalities	Item Means
Attributes of a Temple		10.557		3.91
Variety of Tourist Information	0.808		0.808	3.88
Healthy Food	0.750		0.728	3.93
User Friendly System	0.720		0.764	3.81
Friendliness of Temple Personnel	0.629		0.597	4.06
Personal Time With a Monk	0.551		0.580	3.81
Architectural Beauty of a Temple	0.512		0.674	3.97
User Convenience		2.625		3.96
Comfortable Educational Amanities	0.785		0.833	4.06
Capacity of The Facility	0.781		0.821	4.01
Cleanliness of Amenities	0.769		0.747	4.04
Number of The Participants	0.684		0.572	3.74
Cost of Use	0.570		0.702	3.97
Recuperative Quality		1.917		4.53
Quality of Natural Resources (Air, Water and Soil)	0.832		0.787	4.51
Quiet and Pleasant Settings For a Rest	0.816		0.749	4.62
Well Conserved Nature	0.746		0.715	4.53
Intrinsic Ambience of a Temple	0.633		0.607	4.47
Tranquility of a Temple	0.618		0.725	4.53
Tourism Experience		1,700		3.63
Quality of Cultural/Historic Resources	0.719		0.783	3.84
Facilities for Outdoor Activities	0.674		0.670	3.78
Fame of a Temple	0.636		0.797	3.62
Indigenous Fauna and Flora	0.593		0.753	3.81
Neighboring Tourist Destinations	0.532		0.692	3.49
Friendliness of Local People	0.514		0.644	3.22
Quality of a Program		1.418		3.99
Professionalism of a Program	0.830		0.787	4.13
Reputation of a Program	0.680		0.726	3.72
Variety of a Program	0.446		0.540	4.12
Accessibility and Transportation		1.240		3.77
Easy Accessibility	0.807		0.851	3.71
Convenient Transportation	0.796		0.804	3.82

유의 자연적인 분위기'가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의 질'에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명성'이, '사찰의 특성'에는 '스님 등 사찰 관계자의 친절성', '사찰의 건축미', '건강한 먹거리', '이용관련 정보의 다양성', '예약 등 편리한 시스템', '스님과의 개인적 시간'이 포함되었다. '교육시설(예불공간, 수련공간 등)의 쾌적성', '편의시설(숙박, 식당, 화장실 등)의 청결성', '공간과 시설의 수용능력', '비용의 적정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이용편리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들의 항목 평균값을 참고해 볼 때,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경우는 국립공원이 보유한 자연환경의 질과 함께 템플스테이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찰 고유의 프로그램과 특징, 이용관련 편리성 모두 목적지 결정 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일반적으로 관광활동과 관련된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성'

요인과 '관광체험거리'요인은 기타 관광활동의 유인요인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관광체험거리에는 '역사/문화자원(문화재, 예술품 등)의 질', '독특하고 고유한 동·식물군', '등산로 등 야외활동을 위한 시설', '사찰의 명성', '연계 관광지의 다양성', '지역주민의 친절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성과 자연성에 기인한 사찰의 입지 특성상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에서 체험 가능한 관광여가 활동의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고, 따라서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목적, 목적지 의사결정 시의 영향 요인 등 수요자 관련 특성 또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만족도 고양을 통한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의 저변 확대와 상품성 강화를 위한 마케팅적 노력은 기존의 단일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다원적인 차원에서의 관광동

기에의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타 템플스테이와는 구분되는,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만이 지닌 주된 관광동기에 대한 확인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관광동기로서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반 템플스테이와 차별되는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다원적 참여동기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보다 경쟁력 있는 템플스테이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참여 동기는 특정 종교인만의 종교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국립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질 높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사찰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국민 여가관광활동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국립공원 탐방객과 여타 템플스테이 참가자와는 구분되는 관광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템플스테이 선행 연구에서 발견된 것보다 많은 차원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일상에서 벗어나 웰니스를 추구하는 ‘자연동화감’과 ‘건강증진’의 동기는 정신적 고양과 함께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의 주요 참여동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자연성을 보전하는 관리방안이 템플스테이 활성화 전략의 수립에 있어 동반되어야 하며 국립공원 관리주체와의 유기적 연계는 그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관광과 문화관광, 종교관광의 성격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사찰의 입지와 템플스테이 체험의 특성은 기존 대도시에 입지한 사찰의 템플스테이와는 참여 동기와 참가자 특성 면에서 상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작금까지 템플스테이 참가자 측면의 세부연구가 부족했던 까닭에 국립공원 외 지역의 템플스테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 결과들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연환경 기반의 국립공원 내 템플스테이가 지닌 웰니스지향적 추진요인과 유인요인들은 향후 보다 많은 국립공원 내 사찰의 템플스테이의 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한 정교화된 후속연구를 통해 일반화될 것이 요망된다.

인용문헌

- Ahn, K. and S. Kim(1996) A Study on Visitors' Behavior in Korean National Park. *Jr. of Korean Landscape* 24(1): 32-3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Arnould, E.J. and L.L. Price(1993) River Magic: Extraordinary Experience and Extended Service Encounter. *Jr. of Consumer Research*, 20(June): 24-45.
- Chun, B.G. and Y.J. Chung (2008) The Effect of Temple's Environmental Settings on Templestay Participants' Emoti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Korean Jr. of Tourism and Leisure Study* 20(2): 7-2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Chung, B.W.(2002) A Study on Behavior of Foreign Templestay Visitors: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of Templestay Participation in 2002 FIFA World Cup. *Jr.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8(2): 221-24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Chung, Y.J. and B.G. Chun(2009) The Leisure-Psychological Model of the Temple stay Experience. *Jr. of Tourism Sciences* 33(2): 99-12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Crompton, J.L.(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 Din, K.H.(1993) Religious Tourism. In M. A. Khan, M. D. Olsen and T. Var (Eds), *VNR's Encyclopedia of Hospitality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NY, pp. 822-829.
- Do, K.R.(2000)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Religious Tourists : Focus on the Influence of Expectation-Performance-Disconfirmation to the Satisfaction of Buddhist Temple Visito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Fakeye, P.C. and J.L. Crompton(1991) Image Differences Between Prospective, First Time and Revisit Visitors to Lower Rio Grande Valley. *Jr. of Travel Research* 30: 10-16.
- Fielding, K.A. and P.L. Pearce(1992) Climbing Ayres Rock: Relating Visitors Motivation, Time Perception and Enjoyment. *Jr. of Tourism Studies* 3(2): 110-120.
- Goodall, B.(1991) Understanding Holiday Choice. In C. Cooper (ed)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Vol. 3*. London: Bellhaven Press: 58-77.
- Hong, K.P.(2005) The Task for Landscape Experience of Templestay. *Buddhist Landscape Study* 11: 5-3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Hudman, L.E. and D.E. Hawkins(1989) *Tourism in Contemporary Society: An Introductory Tex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Iso-Aholas, S.E.(1982)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256-262.
- Jeong, I.(1997) A Study on Attributes of Attractions of Bukhansan National Park and Visitors' Attitude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Jin, Y.J.(2010) Participant's Motivation, Preference and Satisfaction on Templestay and Searching for Strategies to Link Programs Between Ecology Oriented Temple Stay and Rural Tourism. *Tourism Study* 25(4): 353-3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K.C.(2005)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for Templestay. *Buddhist Landscape Study* 11: 67-8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C.W. and H.J. Yoon(2008) Identifying Templestay as an Alternative Tourism. *Korean Jr. of Hotel and Tourism Study* 10(2): 130-14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S.S., C.K. Lee and D.B. Klenosky(2003) The Influence of Push and Pull factors at Korean National Parks. *Tourism Management* 24(2): 169-18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S., Y. Kim and Y. Kong(1989) Studies on Us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in Kayasan National Park. *Applied Ecosystem Studies in Korea* 3(1): 107-11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Y.(1993) The Analysis of Visitor's Behavior in Sobaeksan National Park. *Applied Ecosystem Studies in Korea* 6(2): 218-2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M.,Y. Kim and Y. Kwon(1987) Visitors' Us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in a Bukhansan National Park of Korea. *Applied Ecosystem Studies in Korea* 1(1): 66-6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2006) A Plan to Develop the Linked Program between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Tourism. Seoul, Korea. pp.226. (in Korean)
- Prorok, C.V.(1986) The Hare Krishna Transformation of space in West Virginia. *Jr. of Cultural Geography* 7(1): 129-140.
- Reisinger, Y.(2006) Travel/Tourism: Spiritual Experiences. In D.Buhalis and C. Costa (Eds), *Tourism Business Frontiers: Consumers, Products and Industry*, Oxford, Elsevier, 340pp.
- Richards, G.(2007) *Cultural Tourism: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The Haworth Hospitality Press, 347pp.
- Schmidt, C. and D.E. Little(2007) Qualitative Insights into Leisure as a Spiritual Experience. *Jr. of Leisure Research* 39(2): 222-247.
- Sharply, R.(2002) Rural Tourism and the Challenge of Tourism Diversification, *Tourism Management* 23: 233-244.
- Singh, S. and D. Lesile(2005)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Management, Implications and Cases*. Oxford, Elsevier, 240pp.
- Sung Y.S., D.W. Ko and J.H. Jung(1996) Psychological Nature of Leisure Experience-What is Pleasure?. *Consumer Studies* 7(2): 35-5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Turnbull, D.R. and M. Uysal(1995) An Exploratory Study of German Visitors to the Caribbean: Push and Pull motivations. *Jr.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4(2): 85-92.
- Uysal, M. and C. Jurosky(1994) An Empirical Testing of the Push and Pull Factors of Tourist Motiv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4): 844-846.
- Uysal, M, M. MacDonald and Martin(1994) Australian Visitors to US National Pars and National Area. *International Jr.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6(3):18-24.
- Yeoman, I.(2009) *Tomorrow's Tourist; Scenarios and Trends*. Oxford, Elsevier, 357pp.
- Yi, Y.K., P.I. Yi and S.Y. Han(2006) Economic Evaluation of Use and Conservation Values of Traditional Temples. *Jr.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4(5): 84-9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Yi, Y.K. and P.I. Yi(2002) Resource Value Assessment of Traditional Temples in National Parks. *Jr.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4): 37-4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Yoon, Y.I.(1999) A Basic Study for the Long Term Strategy for Protecting Ecosystems in National Parks. *The Jr. of Korean Forest Society* 88(3): 299-30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www.beopbo.com
- www.hankooki.com
- www.gurongsa.or.kr
- www.templestay.com
- <http://woljeongsa.org>
- <http://chiak.knps.or.kr>